

Q9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사례와 피해규모가 궁금합니다.

A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54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산불의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2017년 강릉·삼척산불, 2018년 고성산불, 2019년 고성·강릉·인제산불, 2020년 울주, 안동, 고성산불 2021년 예천, 안동산불, 2022년 울진·삼척, 강릉산불 등, 2023년 홍성산불까지 해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강릉, 동해, 삼척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역대 가장 큰 피해면적을 기록한 산불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만 23,794ha 규모로 축구장 3만5,000개의 면적과 주택 등 800여 채의 건물이 불타고, 경제적으로는 약 36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해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탔습니다. 이는 산불이 산림과 주택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까지 한순간에 불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포항과 울주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이어 32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3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총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3월 4일에 발생한 울진·삼척산불은 16,302ha의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진화소요시간은 213시간 43분으로 역대 우리나라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6,482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였으며, 시설물 약 643개소가 소실되는 등 8,811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대형산불 8건이 발생하면서 3,769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대 대형산불 사례 및 피해규모>

연도	명칭	기간	피해면적 (ha)	피해액 (억원)	이재민/명 (세대)	최대풍속 (m/s)
2023	금산·대전	4.2-4.4.	889	428	-	13
2023	홍성	4.2.-4.4.	1,337	899	113(63)	10
2022	울진·삼척	3.4.-3.13.	16,302	9,086	335(219)	27
2021	안동·예천	2.21.-2.23.	419	177	0	13
2020	고성	5.1.-5.2.	123	3	0	19.1
2020	안동	4.24.-4.27.	1,944	106	0	18.8
2020	울주	3.19.-3.20.	519	28	0	19.1
2019	강원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4.4.-4.6.	2,872	1,291	1,289(566)	35.6
2018	고성	3.28.	357	22	7(5)	10
2018	삼척	2.11.-2.13.	161	7	0	10.8
2017	강릉·삼척	5.6.-5.9.	1,017	133	85(39)	23
2005	양양 (낙산사 피해)	4.4.-4.6.	973	276	412(191)	32
2002	청양·예산	4.14.-4.15.	3,095	60	78(32)	15.1
2000	동해안 (삼척 등 5지역)	4.7.-4.15.	23,794	360	850(299)	23.7

※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